

일부 대학생의 흡연 실태 -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

김 신 정* · 문 선 영** · 한 경 순**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10-15년 사이 우리 나라 국민의 건강수준과 질병 및 사망양상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생활 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제시되고 있다. 다양한 생활양식은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단일 위험요인으로 가장 많은 건강상 위해를 가하는 것이 흡연이다. 따라서 흡연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건강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흡연의 예방을 통하여 상당히 많은 고통, 불행, 죽음과 슬픔,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전체 흡연율은 70%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며 특히 청소년과 여성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Park, 2000).

대학생은 발달 특성상 성인 초기에 해당되며 흡연 및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학생들을 포함한 우리 나라 성인의 흡연율은 대한결핵협회와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29세 연령에서의 흡연율은 1999년을 기준으로 볼 때 성인 남자는 70.4%, 성인여자는 4.8%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흡연율 국가가 되었다(Ji, 1999).

1994년도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흡연자 중 정기적으로 흡연을 시작한 연령이

16-20세인 경우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Yeonseil consult research, 1994), 이를 통해서 남녀 모두 흡연을 정기적으로 시작하는 시기가 대부분 고등학교와 대학 1, 2학년임을 알 수 있다. 1992년도에 발표된 한국 담배인삼공사의 자료에서도 우리 나라 흡연자 중 20, 30대가 전체 흡연 인구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흡연자의 대부분이 청소년 시기에 흡연을 시작하였다(Korea industry economy research, 1992)는 보고가 있다.

특히 대학생은 발달과정에 있어서 성숙완료 단계에 있는 국가의 지적 재산이며 지역사회나 국가 장래의 지도자 역할을 할 귀중한 국가의 재산으로 이들의 건강문제는 개인적인 필요성에서만이 아닌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은 청년기에 속하는 집단으로 다른 발달시기에 비하여 사망률이나 질병 이환율이 비교적 낮고 잘못된 생활습관을 수정하여 보다 나은 건강상태를 가지기에 적합한 집단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대학생들은 고등학교의 억압된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대학이라는 자율성과 성인이 라는 미명아래 음주와 흡연에 있어서 무제한적일만큼 자유롭게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Kim, 1994). 이에 부가하여 무절제한 생활로 인한 불규칙한 식습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난에 대한 부가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흡연이 더욱 조장되고 있어 만성질환을 유발 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교육장소

*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 신흥대학 간호과

인 대학에서 건강의 위협 요소가 되는 흡연에 대한 실태를 확인,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일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흡연동기 및 심리적 특성과 금연 동기를 포함한 흡연 실태를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학적 중재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흡연이 각종 질환을 유발하며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서 실증적인 흡연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금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흡연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다.
2. 대상자의 흡연동기 및 심리적 특성을 알아본다.
3. 대상자의 금연동기를 알아본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동기 및 심리적 특성과 금연동기의 차이를 알아본다.
5. 대상자의 흡연동기 및 심리적 특성과 금연동기와의 관계를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현재 우리 나라의 흡연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흡연율을 살펴볼 때 1990년 흡연 인구는 1천만 명이었다. 그러나 1990년도에 약 194만 명이 증가하였고, 1999년에는 다시 50여만 명이 증가하여 현재는 약 124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특히 급격한 증가를 보인 연령군은 11-19세 여성 흡연자로 1999년에는 약 15만 명으로 1980년에 비해 약 6배, 1990년에 비해 약 3배가 증가하였다(Park, 2000).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잘 알려져 있는데, 흡연과 사망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연구로는 1994년 Peto가 영국인 의사 1만 명을 동원하여 40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 나타난 공통점을 살펴보면 흡연이 건강에 주는 영향은 20년에서 30년이 지난 후에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담배가 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흡연자의 정신적 안정제로서의 기능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소량의 흡연만으로도 건강에 위해를 입히고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간접흡

연의 피해를 끼치며 특히 질병발생 및 사망, 그리고 2세 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담배는 비 가치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암은 물론, 심혈관계질환이나 호흡기계질환, 일부 소화기계질환들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Park, 2000).

흡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첫 흡연을 할 기회를 주고 흡연을 지속하게 하는 사회인구학적, 환경적, 행위적 및 개인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 개인적, 행위적 요소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환경과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간접적인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흡연가들은 담배 속의 많은 유해 물질로 인해 자신에게 암을 비롯한 많은 건강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심지어는 중단하였다가도 다시 피우는 일을 수없이 반복한다. 이러한 상황을 흔히 담배에 중독 되었다고 한다. 처음의 불규칙적인 흡연은 곧 규칙적인 흡연기로 이어져 다양한 상황 및 여러 사람들 앞에서 흡연을 하게되며 흡연의 마지막 단계인 중독기에 들어서면 흡연에 대한 심리적 집착이 생기고 니코틴 내성의 금단 증상을 동반하여 금연에 성공하였다가도 다시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같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담배의 니코틴에 의한 의존성, 내성과 금단 증상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의 건강은 물론, 국민의 차원에서도 더 이상 흡연의 건강적 피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흡연관련 질병은 일단 발병되면 좀처럼 치료가 어려운 만성질환이기 때문이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계산해 볼 때도 이것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 한국 흡연위생협회(1999)에 의해 연구된 바에 의하면 흡연이 우리 사회에 주는 연간 경제적 손실은 흡연에 기인한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용과 기타 간접비용을 포함하는데, 흡연으로 인한 질환만을 고려할 경우 약 2조 7,366억- 3조 9,519억원이 소요되며 흡연과 관련된 기타 질환을 포함할 경우 약 4조 3,178억- 6조 2,645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흡연의 경제적 손실에는 담배에 대한 소비지출과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 등이 포함되며, 흡연에 따른 질병, 장애, 조기사망, 결근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생산인력 손실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금연을 위한 홍보와 교육적 노력에 국가나 민간단체는 적극적이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한

법칙이나 사회적 규제를 통한 적극적인 금연 운동이 필요하다. 금연 기차, 금연 비행기, 금연 건물이 생겨나는 것 등이 바로 금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격적인 흡연의 건강적 피해홍보와 교육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청소년과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은 당장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장기간 흡연 후에는 흡연 관련 질병의 대부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예측하지 못하며 이들 질병이 간단한 전염성 질병과는 달리 한번 걸리게 되면 치료가 매우 어렵거나 아예 불치 상태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Kim, 1994). 또한 이들은 가정, 친구, 사회에 민감하므로 성인 흡연을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에 이들이 참여하도록 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 캠페인을 통하여 흡연이 멋있고 화려한 것이 아님을 알리며 학교 교내의 학생과 교사를 위한 금연교육 프로그램과 규율을 실행(Oh, 2000)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생은 인생 중 사망률과 질병 이환률이 비교적 낮은 청년기이며 이전의 나쁜 습관을 고쳐 앞으로의 남은 삶의 기반이 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기에 적합한 시기이다. 또한 이들은 가까운 미래에 사회에 진출하여 한 가정을 이룰 장본인으로서 이들의 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그리고 행동은 주변 사회인과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현실을 살펴볼 때 국가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들의 흡연율은 놀랄만하다. 일개 대학교 학교보건 진료소 통계에 따르면 입학 직후 남학생의 흡연률은 약 27%이나 대학문화에 익숙해지는 1학년 2학기만 되면 50% 이상 상승되고 이러한 수치는 졸업할 때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흡연관련 지식과 흡연에 대한 태도는 흡연행위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흡연군에서는 친한 친구의 흡연, 흡연에 대한 호의적 태도, 본인의 흡연에 대한 친구의 무관심한 태도, 형제 중 흡연자가 있는 경우 등이 유의한 관련 요인으로 파악되었다(Kim et al, 1994).

미래의 지도자로 교육받고있는 대학생들은 전문지식 학습과 더불어 건전한 생활 습관을 가져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시 준비 때문에 모든 것이 억압된 고등학교 시절로부터 해방된 대부분의 우리 나라 대학생들은 입학직 후 음주, 흡연 등 과거에 성인에게만 자유롭게 허락되었던 습관을 점차 즐기게 되고 그 결과 일부 학생은 심한 정도로 습관화된다. 따라서 흡연 습관

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대학생들의 흡연 실태를 알아보는 것은 대학 내 금연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 실태에 관한 조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흡연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질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도 북부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남녀 대학생으로 현재 흡연을 실시하고 있는 대상자로서 자료수집 기간은 1999년 9월 1일부터 2000년 1월 30일까지이었다.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작위 표본 추출에 의해 800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 후, 이에 동의한 대상자로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익명을 보장하였으며 연구에 대한 참여는 강요하지 않았다.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준비한 설문지를 배부하여 현장에서 간략하게 설명 후 기입토록 한 뒤 회수하였는데, 장소로는 대학교의 식당, 휴게실, 도서관, 강의실 등을 이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에게 배부된 800부의 설문지 중 737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92.1%이었으나 그 중에서 응답자의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였던 127부를 제외한 610부로 76.2%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최종적으로 회수된 610명 중 흡연 대학생은 201명(33%)이었으며, 비흡연자는 409명(67%)으로 이 중 설문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흡연 대학생만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처음부터 흡연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수집 하지 않은 이유로는 흡연 대상자만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자료수집할 경우, 흡연여부가 노출되므로 이에 대한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여학생의 경우를 특히 고려했기 때문이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Han et al.(1995)이 개발한 도구의 내용을 토대로 문헌 고찰을 통하여 연구자 3인과 흡연관련 전문가 2인이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문항 내용을 합의 수정, 보완하여 완성한 설문지를 사전조사를 거쳐 사용하였다. 도구의 내용은 흡연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 흡연자의 흡연동기 및 심리적 특성, 금연동기로 구성 되어 있다. 흡연자의 흡연동기 및 심리적 특성은 18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도구로 최저 18점에서 최고 90점의 점수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 동기가 강함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819$ 로 높게 나타났다. 금연 동기는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도구로 최저 12점에서 최고 60점의 점수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에 대한 동기가 강함을 의미하고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6609$ 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7.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에 대한 태도는 빈도와 백분율로, 흡연동기 및 심리적 특성과 금연동기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동기 및 심리적 특성, 금연동기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고, 흡연동기 및 심리적 특성과 금연동기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대상자의 흡연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19-26세의 범위로 평균 22.5세이었으며 성별은 남학생이 76.1%로 여학생의 23.9%보다 많았다. 이는 남자 대학생 74.6%, 여자 대학생 23.1%가 담배를 피워 본 경험이 있다고 한 Han et al.(199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대상자의 한달 용돈은 10-20만원이 46.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20만원 이상이 35.3%를 차지하였고 학교생활의 만족도는 보통이라고 한 경우가 60.2%로 가장 많았는데 불만족이 25.9%, 만족이 13.9%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흡연시작 시기는 고등학교가 43.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학교가 23.4%를 차지하였는데, Kang et al.(1980)의 연구결과에서는 흡연 대상자의 42%가 19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연령적으로 계산하면, 19세 이전의 흡연경험은 53%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흡연 시작 연령이 더욱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흡연 시작 연령의 연소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때 흡연을 시작한 경우가 2.9%로 나타났는데, Chung과 Mun(1996)의 연구에서는 5.6%가 초등학교 때 흡연경험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교육부에서도 2001년부터 초등학교 체육 교과서에 흡연의 해로움과 금연의 필요성을 알리는 내용을 삽입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흡연기간은 5년 이상된 경우가 4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년-5년 된 경우가 27.4%의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중·고등학교시기에 흡연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흡연량은 하루 한 갑 정도가 31.8%로 가장 많았으며 흡연의 시작 동기는 호기심이 46.3%로 가장 많았는데, 이를 통해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의 발달특성으로 인해 흡연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흡연을 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흡연이유로는 습관적이라는 응답이 60.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19.4%의 순이었으며 처음 담배를 피웠을 때는 친구(동료)와 같이 피웠다는 경우가 84.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가족 중 아버지의 흡연정도는 매일 피운다는 경우가 47.8%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이 대상자의 흡연사실을 안다면 피우지 말라고 타이를 것이라는 응답이 40.3%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특히 아버지의 흡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동시에 부모 역시 흡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흡연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은 4시간 이상이 61.7%로 가장 많았으며, 73.1%는 친한 친구들 대부분이 담배를 피운다고 하였다. 흡연 동기와 관련된, 흡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외국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Green et al.(1991), Novotny et al.(1988) 및 Strebel et al.(1989)의 연구에 의하면 흡연의 주요 역할 요인으로는 흡연하는 친구 또는 동료의 권유로, 대부분 이들로 부터의 영향에 의해 흡연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친구의 영향은 더 크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규칙적 흡연자는 친구와 형제의 영향을 같이 받았으나 불규칙적 흡연에서는 형제의 흡연여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연관이 없었다는 점을 볼 때, 대학생들이 흡연을 시도할 때 친구의 흡연여부, 친구의 흡연에 대한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Kim et al., 1994). 흡연하는 친구의 흡연 권유나 영향 때문에 흡연을 하게 되는지, 흡연을 함으로써 비슷한 속성을 가진 친구를 선택하게 되는지,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으나 흡연자는 흡연자끼리 비흡연자는 비흡연자끼리 친구가 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흡연을 예방하거나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세울 때 친구의 영향이나 흡연 압력에 대한 저항전략도 고려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흡연상태는 집에서 피운다는 경우가 52.7%이었으며 가장 흡연욕구를 느낄 때는 식후 습관적이라는 응답이 33.8%를 차지하였다. 흡연으로 인한 신체의 변화로는 가래, 기침 등 호흡기계 변화라고 응답한 경우가 45.3%를 차지하였으며 담배 구입은 담배자판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46.3%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주 흡연장소는 길거리가 3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화장실이 29.4%를 차지하였다.

학교에서 금연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고려해보겠다는 응답은 56.7%이었으며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28.9%를 차지하였다. 즉,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 교육에 대한 질문에 과반수 이상

이 금연 교육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나타난 결과를 생각해 볼 때, 대학생 개인에게 금연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그룹으로 지도하여 흡연하는 학생과 그의 친구를 같이 금연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면, 최근 우리 나라에서 거론되고 있는 초등학교 정규 교육에 금연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생각되며, 중·고등학교 이전에 충분히 금연교육이 안된 학생들을 위해 대학에서 입학 직후나 학기초에 금연 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대상자들의 흡연은 주로 습관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흡연시 얻어지는 입의 만족감과 니코틴의 약리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이처럼 흡연 습관이 고착화 된 경우는 흡연과 건강에 대한 지식정도가 흡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흡연을 시도하기 전 또는 흡연 시도를 하는 초기에 확실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중재방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 대상자의 흡연동기 및 심리적 특성

대상자의 흡연동기 및 심리적 특성은 최저 13점에서 최고 51점의 분포로 평균 31.05점을 차지하였다(Table 1). 이를 문항별로 살펴볼 때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담배에 손이 간다」가 4.6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Table 1> Subjects' Smoking motivation and Psychologic characteristics

No.	content	M	SD
1	When I tired or to avoid thinking and behavior slow, need stimulation, I smoking	2.83	.19
2	To keep fingering cigarette is one of the pleasure of smoking	3.36	1.38
3	Smoking gives me fun and rest	2.98	1.13
4	When I get angry or excited, I smoking	2.23	1.07
5	When the cigarette exhausted and I can not seek right now, I feel nervous.	3.10	1.19
6	When I conscious of others, to look better I smoking I	3.85	1.01
7	While I am unconscious of that I grasp a cigarette	4.67	.84
8	The feeling light a cigarette is one of the reason which I enjoy smoking	3.46	1.24
9	When smoking, I feel good and satisfaction	2.94	1.16
10	When I feel confuse and unstable, I smoking	2.48	1.03
11	When I stop smoking, I always realize that I am not smoking now.	3.10	1.24
12	I have been light a cigarette unaware of the fact that there is a smoking cigarette on the ash tray	3.68	1.28
13	To enhance my feeling and mood, I smoking	3.15	1.17
14	To gaze at smoke blowing into the air is one of the pleasure of smoking	3.22	1.22
15	When I feel comfort and sense of well-being, I would like to smoking	2.88	1.19
16	When I depressed or to get out of troubles, I smoking	2.34	1.06
17	When I stop smoking for a short time, I feel smoking desire	3.31	1.21
18	I have been not remember the fact even though I hold cigarette in month	3.74	1.25
Total		2.59	.53

다음으로는 「타인을 의식하여 돋보이려고 할 때 담배를 피운다」가 3.85점,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데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다」가 3.74점의 순이었다.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은 「화가 나거나 흥분할 때 담배를 피운다」가 2.23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우울하거나 걱정거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담배를 피운다」가 2.34점, 「무언가에 대해 혼란하거나 불안정할 때 담배를 피운다」가 2.48점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여대생의 경우(Han et al., 2000)에서는 「담배를 붙일 때의 기분은 내가 담배를 즐기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가 3.55점으로 가장 높았고, 남학생의 경우(Moon et al., 2000)에서는 「타인을 의식하여 돋보이려고 할 때 담배를 피운다」가 3.9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대생의 경우에는 「나른하거나 생각과 행동이 느려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자금이 필요할 때 담배를 피운다」가 2.45점으로 가장 낮았고 남학생의 경우 「무의식중에 나도 모르게 담배에 손이 간다」가 1.2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이전의 연구는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을 분리한 결과이나, 본 연구는 흡연하는 대학생 모두를 포함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흡연동기를 보면 남녀 모두 부정 정서의 통제 조건 다음으로 휴식과 긴장이 완을 위한 기대감 조건에서 흡연동기가 높게 나타나 긴장 완화 및 심리적인 욕구가 흡연하고자 하는 욕구를 증가시킬 수 있었는데(Han et al., 1995; Han, Moon, 2000),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성향에 더하여 대상자의 흡연은 심리적인 의지 통제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진다.

흡연동기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성인에 대한 모방과 또래 집단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흡연을 하여 가질 수 있는 이완감, 긴장의 감소, 인지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 도움을 주는 지각으로 제시되고 있다(Han, et al., 1995). 즉,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상자의 흡연동기 및 심리적 특성은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습관과 흡연을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관적 지각임을 알 수 있다.

3. 대상자의 금연동기

대상자의 금연동기는 최소 22점에서 최대 85점의 분포로 평균 57.31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나는 담배로 좋은 옷, 테이블보, 벽, 가구 등을 버려놓았다」가 3.0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므로써 나의 자제능력의 높은 차원은 인품에 반영시킬 수 있다」가 2.89점이었고 「담배를 피는 것은 나만의 습관이다」가 2.80점의 순이었다. 반면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문항은 「흡연은 암을 유발시키며 중대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가 2.20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흡연은 나의 호흡작용과 폐활량에 나쁜 작용을 한다」와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가 각각 2.26점의 순이었다. 이는 남·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는 담배로 좋은 옷, 테이블보, 벽, 가구 등을 버려놓았다」가 가장 높았고, 「흡연은 암을 유발하며 중대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Han et al., 2000)와 일치한다.

(Table 2) Subjects' no smoking motivation

No.	content	M	SD
1	Smoking provoke cancer and serious disease	2.20	1.08
2	Because of the smoking, I can give bad impression to others	2.58	1.06
3	Smoking is only my habit	2.80	1.09
4	Through no smoking, the power of self-control can reflect my personal dignity	2.89	1.16
5	Smoking have a bad effect my respiratory, function and lung capacity	2.26	1.14
6	If I stop smoking, it also can be a chance to others stop smoking	2.77	1.18
7	My smoking soil good clothes, tablecloth, wall furnitures	3.04	1.24
8	If I stop smoking, it can be a opportunity to verity good will power	2.53	1.25
9	Smoking is harmful to health	2.26	1.11
10	My smoking is because of temptation of my close people or their smoking	2.75	1.10
11	If I stop smoking it exert a beneficial influence upon appetite and respiration	2.58	1.15
12	If I stop smoking I can save money	2.39	1.16
Total		3.18	.67

본 연구에서 「나는 담배로 좋은 옷, 테이블보, 벽, 가구 등을 버려놓았다」가 3.0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대상자의 흡연 동기에서 통제력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반해 물질적인 피해로 인해 금연 의지가 상승되어 있음과 내재적으로는 금연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동시에 물질적인 피해가 나타날 때까지 자신의 흡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아직 대학생들이 젊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적으며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를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흡연의 유해성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에 대한 검증자료가 수 없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의 중요성에 대해 강력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동기 및 심리적 특성과 금연동기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동기 및 심리적 특성과 금연동기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3). 대상자의 흡연동기 및 심리적 특성은 대상자의 한달 용돈(F=4.006, p=.004), 흡연하는 이유(F=4.196, p=.003), 대상자의 흡연유형(F=2.314, p=.035), 아버지의 흡연정도(F=3.119, p=.027), 친한 친구들의 흡연여부(F=4.430, p=.013)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금연동기는 연령(F=3.469, p=.033), 흡연 시작시기(F=2.834, p=.039)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Table 3> The difference of subjects' smoking motivation, psychologic characteristics and no smoking motivation according to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Smoking motivation and psychologic characteristics						No smoking motivation			
	Classification	빈도	M	SD	t or F	p	M	SD	t or F	p
Grade										
1st		116	3.14	.71			2.51	.58		
2nd		67	3.23	.63	.518	.670	2.65	.41	2.258	.083
3rd		11	3.36	.53			2.83	.27		
4th		7	3.12	.67			2.81	.72		
Age										
19-21		87	3.10	.71	1.363	.258	2.48	.54	3.469	.033*
21-24		58	3.29	.64			2.64	.40		
above 25		56	3.20	.64			2.70	.59		
Sex										
male		153	3.21	.70	1.097	.275	2.58	.52	-.297	.766
female		48	3.10	.56			2.61	.56		
Religion										
have		102	3.17	.64	-.244	.807	2.61	.52	.590	.556
none		99	3.20	.70			2.57	.53		
Allowance for the month										
below 100,000		37	3.52	.74	6.197	.002**	2.58	.47	.653	.521
100,000-200,000		93	3.15	.64			2.63	.51		
above 200,000		71	3.06	.62			2.54	.57		
Satisfaction about school life										
satisfaction		28	3.36	.83	1.850	.160	2.58	.55	.433	.649
ordinary		121	3.20	.67			2.56	.51		
unsatisfaction		52	3.06	.56			2.65	.55		
Starting time of smoking										
elementary school		12	2.91	.81			2.78	.62		
middle school		55	3.10	.69	1.968	.120	2.42	.54	2.834	.039*
high school		87	3.18	.65			2.63	.54		
university		47	3.35	.64			2.65	.42		

다. 이는 연령 및 학년, 용돈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Han et al.(200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대상자의 흡연동기 및 심리적 특성은 대상자의 한달 용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3.52로 흡연동기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10-20만원 이하가 3.15, 20만원 이상이 3.06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오히려 용돈이 적은 경우가 흡연동기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 흡연동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낮은 생활수준이 대상자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흡연동기를 강화시킬 수도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연구에서 흡연은 가정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흡연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체중조절을 위해」

(Table 3) The difference of subjects' smoking motivation, psychologic characteristics and no smoking motivation according to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continued)

Characteristics	Smoking motivation and psychologic characteristics					No smoking motivation				
	Classification	빈도	M	SD	t or F	p	M	SD	t or F	p
Duration of smoking										
below 1 year		24	3.36	.84			2.52	.41		
1-3 year		40	3.15	.61	1.136	.336	2.68	.36	.718	.542
3-5 year		55	3.25	.60			2.61	.49		
above 5 year		82	3.10	.69			2.55	.64		
Smoking amount per one-day										
above 1 packet		24	3.21	.80			2.82	.60		
1 packet		64	3.06	.69	1.065	.365	2.55	.52	1.958	.122
half packet		58	3.23	.58			2.52	.52		
below half packet		55	3.26	.68			2.60	.49		
Motivation of starting smoking										
flavor		23	2.90	.75			2.61	.65		
hostility		13	2.97	.83			2.54	.67		
curiosity		93	3.19	.61	1.909	.095	2.51	.52	1.294	.268
relatives recommendation		3	2.83	.54			2.83	.36		
companionship		30	3.28	.60			2.58	.37		
etc.		39	3.35	.71			2.75	.51		
Smoking reason										
habit		122	3.20	.63			2.57	.55		
emotional stability		39	2.88	.67	4.196	.003**	2.66	.48	.636	.637
social relationship		17	3.23	.82			2.46	.55		
wt. control		11	3.58	.51			2.67	.54		
etc.		12	3.55	.65			2.67	.36		
Smoking type										
to get stimulation		20	3.36	.75			2.60	.54		
keep fingering		7	2.97	.97			2.82	.66		
joy		11	2.68	.76	2.34	.035*	2.42	.49	.418	.867
tension relief		50	3.17	.63			2.60	.55		
smoking desire		21	2.93	.78			2.58	.58		
habit		87	3.29	.59			2.58	.50		
etc.		5	3.27	.36			2.55	.60		
The person with whom start smoking										
friend		170	3.18	.68			2.56	.51		
father		3	2.96	.79	2.314	.715	2.89	.38	1.466	.227
relative		11	3.07	.80			2.64	.70		
etc.		17	3.32	.54			2.80	.58		

흡연을 한다는 경우가 3.58로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의 경우 남학생의 경우보다 더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경우, 미(美)에 대한 관심이 서구화되면서 날씬함을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바라보는 보편적인 가치나 태도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흡연 시 발생하는 니코틴이 신체내의 기초대사율을 높이는 작용을 하므로, 대상자들이 흡연을 체중조절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실제로 여성 흡연자들이 금연을 시도한 후 다시 담배를 피워야겠다고 결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체중증가를 꼽고있다는 보고(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999)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흡연유형은 「무엇인가 자극을 받기 위해」가 3.56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습관적으로」가 3.29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해 담배를 통해 무료함을 달래고 구강만족을 얻고 담배가 떨어지면

조바심이 나며, 의식하지 못하면서 담배에 손이 가게 만드는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흡연동기가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흡연자들이 항상 무언가를 입 속에 집어넣는 일에 익숙해져 있으며 이것을 흡연의 즐거운 점 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버지의 흡연정도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매일 피운다」는 경우가 3.41로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해 가족 내에서 역할모델인 아버지의 흡연행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Jeong 과 Park(2001)의 연구에서도 아버지가 흡연하는 경우가 64.3%로 나타났고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족 흡연자가 있는 경우의 흡연 위험이 없는 경우보다 1.38-1.7배로 나타난 보고(Korean association of smoking and health, 2000)와 일치한다. 이는 사회학습이론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자녀가 모델인 아버지의 흡연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흡연동기의 강화에 중요한 영향

<Table 3> The difference of subjects' smoking motivation, psychologic characteristics and no smoking motivation according to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continued)

Characteristics	Smoking motivation and psychologic characteristics					No smoking motivation				
	Classification	빈도	M	SD	t or F	p	M	SD	t or F	p
Father's smoking										
daily		96	3.41	.63	3.119	.027*	2.56	.56	.724	.539
sometimes		37	2.97	.71			2.65	.44		
stop smoking		34	3.30	.63			2.52	.45		
no smoking		34	3.15	.66			2.67	.57		
If parents know my smoking										
very angry		41	3.05	.58	.731	.572	2.62	.52	2.058	.088
angry		18	3.32	.76			2.45	.42		
admonish		81	3.23	.72			2.50	.52		
don't care		16	3.13	.68			2.71	.58		
admit smoking		45	3.20	.63			2.73	.53		
Spending time with smoking friend										
below 1 hr		17	3.28	.47	.405	.750	2.63	.47	.297	.827
1-2 hr		24	3.27	.71			2.66	.35		
3-4 hr		36	3.22	.65			2.53	.55		
above 4 hr		124	3.14	.70			2.58	.56		
smoking of close friend										
smoking		147	3.10	.67	4.430	.013*	2.57	.54	.229	.796
fifty-fifty		38	3.41	.60			2.64	.45		
no smoking		16	3.40	.66			2.60	.58		
smoking in the house										
smoking		106	3.21	.65	2.081	.128	2.60	.58	.522	.594
no smoking		51	3.27	.75			2.62	.39		
smoking secretly		44	3.01	.61			2.52	.54		

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TV, 드라마, 영화 등에서의 연예인들의 흡연 장면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공개적인 흡연, 학교 교사들의 흡연도 흡연동기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친한 친구들의 흡연여부에 따라서는 흡연친구 대비 흡연친구가 반반인 경우가 흡연동기가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흡연동기가 교우관계와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흡연의 시작이 친구의 권유라고 나타난 연구(Jeong, Park, 2001)나 흡연동기의 가장 많은 비율이 '친구를 따라서'라고 나타난

결과(Korean association of smoking and health, 2000)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대상자의 흡연동기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흡연하는 학생 뿐 아니라, 동료집단, 가정까지를 포괄하는 보다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금연동기는 연령이 25세 이상인 경우가 2.70으로 가장 높고 22-24세는 2.64, 19-21세는 2.48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흡연 시작시기가 초등학교인 경우가 2.78로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흡연을 일찍 시작하고 오랫동안

(Table 3) The difference of subjects' smoking motivation, psychologic characteristics and no smoking motivation according to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continued)

Characteristics	Smoking motivation and psychologic characteristics						No smoking motivation			
	Classification	빈도	M	SD	t or F	p	M	SD	t or F	p
When feel the smoking desire										
hungry		11	3.14	.80			2.66	.50		
drinking		32	3.40	.74			2.66	.37		
tedium		23	2.96	.88	1.372	.228	2.61	.63	1.696	.124
conflict		30	3.24	.69			2.43	.55		
after meal		68	3.11	.56			2.51	.49		
other's smoking		19	3.14	.69			2.85	.62		
etc.		18	3.35	.43			2.67	.56		
Physical change due to smoking										
respiratory change		91	3.17	.69			2.53	.49		
wt. loss		15	3.21	.56			2.69	.57		
headache		11	3.16	.63	.182	.969	2.66	.50	1.454	.207
fatigue		19	3.12	.39			2.57	.40		
skin change		26	3.13	.68			2.47	.62		
etc.		39	3.27	.79			2.75	.58		
Purchase of cigarette										
vending machine		93	3.17	.69			2.50	.47		
store		21	3.22	.50	.051	.985	2.75	.52	1.782	.152
existing at home		12	3.15	.60			2.68	.48		
etc.		75	3.19	.71			2.63	.58		
Smoking place										
toilet		59	3.05	.72			2.52	.55		
street		62	3.15	.70			2.63	.54		
restroom		16	3.11	.62	1.764	.108	2.48	.43	.923	.480
coffee shop		26	3.31	.55			2.65	.50		
house		30	3.40	.62			2.57	.48		
friend house		3	3.91	.56			3.08	1.13		
singing room		5	2.99	.34			2.77	.29		
Participation to no smoking program										
not participate		58	3.12	.70			2.70	.60		
consider		114	3.15	.66	2.561	.080	2.52	.48	2.550	.081
participate		29	3.44	.60			2.66	.53		

* p<.05 **P<.01 *** P<.001

안 흡연을 한 경우에 금연동기가 약할 것으로 생각되나, 오히려 높음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흡연의 중독성을 짐작할 수 있다.

5. 대상자의 흡연동기 및 심리적 특성과 금연동기와의 관계

대상자의 흡연동기 및 심리적 특성과 금연동기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Table 4). 대상자의 흡연동기 및 심리적 특성은 금연동기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의 흡연동기 및 심리적 특성이 강할수록 금연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의 흡연에 대한 연구(Moon et al, 2000)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흡연에 대한 심리적 특성이 높을수록 금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동기는 금연에 대한 심리적 요구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흡연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예민할수록 금연에 대한 동기는 높다고 해석된다.

또한 흡연 여자 대학생에 대한 연구(Han et al, 2000) 결과에서 자신에게 자국이 필요할 때 담배를 즐기면서 흡연 자체를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흡연을 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의 변화를 조절할 수 있기도 하였다. 즉 화가 나거나 흥분할 때 담배를 피우는데 이는 혼란하거나 불안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며, 모든 걱정거리로부터 그 순간 탈출하고 싶다는 심리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들의 흡연과 관련된 복잡한 심리적인 면을 보여준다 하겠다. 특정 이유 없이 이들에게 금연을 강요한다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 요인에 친구의 영향이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흡연 습관이 고착화되기 전에 흡연과 건강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지식을 가지게 하고, 흡연에 대한 비호의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동시에 대학 내에서 집단적으로 흡연에 대하여 상호 비호의적 영향을 보이도록 하면서 금연 압박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s' smoking motivation, psychologc characteristics and no smoking motivation

smoking motivation and psychologc characteristics	
no smoking motivation	r=.190 p=.007**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흡연이 각종 질환과 발달 특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서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실증적인 금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한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 경기도 북부 지역에 소재 한 대학의 남녀 대학생 800명을 무작위 표본 추출한 후 이중 흡연 대학생 210명을 최종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자료 수집 기간은 1999년 9월 1일부터 2000년 1월 30일까지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7.5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흡연동기 및 심리적 특성은 평균 2.59점으로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담배에 손이 간다" 문항이 4.6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화가 나거나 흥분할 때 담배를 피운다" 문항이 2.23점으로 가장 낮았다.

2. 대상자의 금연동기는 평균 3.18점으로 "나는 담배로 좋은 옷, 테이블보, 벽, 가구 등을 버려놓았다" 문항이 3.0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문항은 "흡연은 암을 유발시키며 중대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가 2.20점 이었다.

3. 대상자의 흡연동기 및 심리적 특성은 대상자의 한 달 용돈(F=4.006, p=.004), 흡연하는 이유(F=4.196, p=.003), 대상자의 흡연유형(F=2.314, p=.035), 아버지의 흡연정도(F=3.119, p=.027), 친한 친구들의 흡연여부(F=4.430, p=.013)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금연동기는 연령(F=3.469, p=.033), 흡연 시작시기(F=2.834, p=.039)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대상자의 흡연동기 및 심리적 특성은 금연동기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90 p=.007) 즉, 대상자의 흡연동기 및 심리적 특성이 강할수록 금연동기 또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식층으로 대표되는 대학생의 흡연 실태로, 이들의 흡연 문제는 우리 나라 미래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보건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만 하고, 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는 일부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흡연 동기와 금연에 대한 심리적 요구를 확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또한 세계적으로 높은 흡연율을 나타내는 우리 나라 대학생들이 흡연을 하게 되는 흡연 동기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여 흡연 실태 및 그 문제를 확인하는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3. 대학생들이 금연의 심리적 요구의 유형에 따라 금연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도록 그 유형 분석을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

- Association of Korean Consumer (1999). The Survey of public facility of smoking. nonsmoking area, 5 month.
- Baek, N. Y. (1986). *Survey and research of the highschool male's knowledge, attitude, behavior about smoking*. ChungAng Uni. Social development master degree Paper.
- Catholic Uni of Nursing (2000). The development of smoking preven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Chung, Y. S., Mun, Y. H. (1996). A survey research on Health care behaviors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13(2), 35-53.
- Ewha Women's Uni. Medical Prevention Class (2000). The health survey and development of model for community based adolescents health prevention management system. *Ministry of Health and wealfare, 1st year report*.
- Han, J. C., Oh, K. J., Lee, K. H. (1995). Smoking behavior analysis of Korean Social-Psychological factor. *fresh report on smoking and health*, 110-198.
- Han, J. S., Hong, H. S., Lee, K. S. (2000). The factor of partial University Hospital male worker of cessation smoking Behavior. *J. of Korea home medicine*, 21(2), 265-274.
- Jeong, M. Y., Park, C. W. (2001). A study on the factors of effecting on Smoking Behavior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city area. *J. of Korean Public Health*, 27(1), 39-52.
- Ji, Y. O (1988). *The research effect og teaching approach for cessation smoking on smoking behavior change*. Yeonsei Uni. Master degree, 28-49.
- Kang, B. S., Ye, Y. H., Lee, S. R. (1980). The survey on Taegu area partial Student's of Uni, Kim, K. S., Kim, O. O., Park, J., Choi, J. S. (1994). Associated factors with Smoking in the Freshmen of the College in an Area. *J. Korean Public Health Assoc*, 20(1), 3-14.
- Korea Association of Smoking and Health (2000). *Smoking & Health(Tabacco or Health)*.
- Korea Cancer Center, Korean Health Society Research Center (2000). *Health Promotion & Cesation of smoking 2000 datas*.
- _____ (2001). *Health Promotion & Cessation of smoking 2001 datas*.
- Korea Health Society Research Center (2001). *Cessation Smoking Extending Strategy, 2001 4mon. 26date Strategy Discussion Datas*.
- Korea Industry Economy Research Center (1992). *Research of Cigarettes production price and marketing strategy*, Korea ginseng & tobacco institute.
- Koshin Uni. (2000). *The analysis on Hospital Visitors and related factors of University*

- Hospital. Ministry of Health and Wealfare. *KyeongBuk Medical Journal*, 21(2), 604-609.
- Lee, O. J., Lee, J. A. (1993). The survey on smoking and smoking factors of KwangJu area male highschool students. *J. Prevention Medicine*, 26(3), 359-370.
- Lee, S. K. (1987). *A Study on female student's behavior and influential factors on cigarett smoking*. Ewha womens Uni. Health Education Master degree.
- Samyook Uni. (2000). *The effect of smoking prevention program using Video on Adolescent's Intention, Assertiveness and Attitude toward Smoking*. Ministry of Health & Welfare 1st year report.
- Shin, S. R., Lee, D. S., Park, J. H. (2000). The effect of Life Smoking Cessation Program- multidisciplinary approach. *Korean Journal of Nurse Academy*, 30(1), 110-136.
- Shin, Y. K., Kang, Y. J., Moon, S. I., Park, S. Y., Lee, H. R. (1998). The effect of the adolescent smoking cessation program. *J Korean Acad Fam Med*, 19(12), 1387-13989.
- Su, M. K. (2000). *The Project of smoking prevention and Cessation smoking with public media*. Korea health society research center, Ministry of Health and Wealfare.
- Su, I., Lee, H. S., Son, Y. S., Kim, I. S., Sin, D. C., Choi, Y. I. (1988). The Survey on male highschool students all over the country. *Korea Epidemic Acad. J.* 10(2), 131-145.
- Yeonsei Uni. Student Counsellor Center (1994). The Survey of 1994 year freshmen. *Yoensei Counsellor Research*, 10, 3-44.
- Bandura, 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est, J. A., & Hakstain, A. R. (1978). A Situation-specific model for smoking behavior. *Addictive Behavior*, 3(2), 79-92.
- Chassin, O., Presson, C. C., Sherman, S. J., Edwards, D. A. (1992). The Natural History of cigarette smocking an young adult social rol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 328-347.
- Condiotte, M. M., & Lichenstein, E. (1981). Self-efficacy and relapse in smoking cessation program.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5), 648-658.
- Diclamente, C. C., Prochaska, J. O., & Gebertini, M. (1985). Self-efficacy and the stages of self-change of smoking.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9(2), 181-200.
- Firth, C. D. (1971). Smocking behavior and its relation the smoker's immediate experience.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 73-78.
- Flay, B. R. (1993). *Youth tobacco use : Risks, spatterns and control*.
- Gren G., Macintyre S., West P., & Ecob R. (1991). Like parent like child? Associations between drinking and smoking behaviors of parents and their children. *BrJ addict*, 86(6), 745-758.
- Jessor, R., & Donovan, J. E., & Costa, F. M. (1991). *Beyond adolescence : Problem behavior and young adult development Cambridge, U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venthal, H., Fleming, R., & Glynn, K. (1988). A cognitive-deveopmental approach to smocking intervention.
- Linda Ewelws. & Ina Simnerr. (1995). *Promoting Health -A Practical Guide Third Edition*, Scutari Press, London.
- Novotny, T. E., Warner, K. E., Kendrick, J. S., & Remington, P. L. (1988): Smoking by blacks and whites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differences. *Am J Pulbic Health*, 78(9), 1187-1189.
- Smilkstein, G. The family APGAR (1987). A proposal for a family fuction test and its use by physicians. *Journal Farm Pract*, 6(6), 1231-1239.

- Spielberger, C. D., Jacobs, G. A. (1982). Personality and smok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6, 396-403.
- Steel, L., Abeles, R. P., Card, J. J. (1982). Sex differences in the patterning of adult roles terminent of sex differences in occupational achievement. *Sex roles*, 9, 1009-1024.
- Strebel, P., Kuhn, L., & Yach, D. (1989). Determinantas of cigarette smoking in the black township population of Cape town. *J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43, 209-213.

- Abstract -

The Actual Condition of Smok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Kim, Shin Jeong* · Moon, Sun Young**
Han, Kyoung S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wofold: one, to provide basic data to prevent smok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and two, to develop an effective no smoking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Two hundred and ten 210 university students who smoked were enrolled in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999 to January, 2000 using a questionnaire. The data collected were scored by using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ccording to the motivations for smoking,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 motivation for not smoking. Each item was analyz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by the t-test and the ANOVA 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average score of subjects' smoking motivation and psychologic characteristics was 2.59.
2. The average score of subjects' no smoking was 3.18.
3. With the respect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smoking motivation and psychologic characteristic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owance for the month ($F=6.197$, $P=.002$), smoking reason ($F=4.196$, $P=.003$), smoking type ($F=2.34$, $P=.035$), father's smoking ($F=3.119$, $P=.027$), and smoking of close friend ($F=4.430$, $P=.013$). In subjects' no smoking motiva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age ($F=3.469$, $P=.033$) and starting time of smoking ($F=2.834$, $P=.039$).
4.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r=.190$, $p=.007$) between subjects' smoking motivation, psychologic characteristics and no smoking motivation.

Key words : Smoking, University student

*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Kimsj@hallym.ac.kr

** Department of Nursing, ShinHeung College